

재정지원제한 해제



본교가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났다. 지난 8월 25일, 본교는 교육부로부터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아,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주기 대학평가 등급 자체가 상향조정된 것은 아니다.

본교는 2015년 8월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었다. 그 결과, ▲정원 평균수준 이상 감축(10%)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 ▲신규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3년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학사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을 권고받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하위 등급(D, E등급) 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학과 간 통합 및 융합을 통한 강점분야 집중 육성 ▲학사관리, 학생지원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제시라는 컨설팅 원칙에 따라, 각 단계별 이행 과제와 선결 과제를 대학에 제시했다. 그리고 개별 대학으로부터 후속 조치 이행 결과

를 보고받아, 최종 현장조사 후 이행 평가점수를 매겼다. 25일 그에 따른 결과가 각 대학으로 개별통보된 것이다. 손성민 (경제 4) 총학생회장은 “이번 컨설팅 결과가 학생·교수·교직원이 모두 합심해서 이뤄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기획협력처 평가감사팀 담당자는 “교육부로부터 가통보가 아닌 최종 결과를 수령한 후에, 총장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관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교육부가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

으나, 한국대학신문(8월 25일 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하위 그룹 대학 중 3분의 1이 넘는 25개 대학들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본교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디자인과 IT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정원 감축 및 학사구조 개편을 실시했다. 재정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비환원율을 유사규모 사립대학 평

균인 16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인전입금 또한 5년간 총 3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장학금 지급률 상향조정, 실시간 출결 확인 시스템 도입, 진로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확대, 취·창업지원시스템 개발 및 상시 운영, 학생 학습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변화가 계획되어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평가일정 등 향후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어, 추후에도 본교에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2학기에도 계속되는 학사구조개편

트랙제도와 커리큘럼에 관한 2차 간담회는 9월 예정

지난 5월 31일, 본교는 교육부에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4월 26일에 발표한 개편안이 현재 변동 없이 진행 중이다. 17학년도부터 라키비움 비즈니스, 스마트 그린 신산업과 같은 새로운 트랙이 생겨날 예정이며, 각각의 고유한 졸업시스템을 가졌던 전공들 중 일정 부분이 하나의 트랙으로 융합된다.

이에 따라 각 트랙의 커리큘럼, 졸업 시스템 등과 같은 세부사항들이 현재 논의 중이다. 조세홍(컴퓨터공학부) 교무처장은 “커리큘럼은 현재 각 단과대학 소속의 다양한 교수들로 이루어진 기획팀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번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개편 이후의 졸업시스템은 타 학교들의 학사구조 개편 방식과 마찬가지로 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변화된다”며 “새로운 교과 과정이 적용되는 17학년부터 개편된 졸업 시스템이 적용되고, 재학생들은 기존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된다. 하지만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주무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번 학사구조개편안의 영향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편입생들, 신입생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장이 2학기 중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트랙제도 시행에 대해 2차 간담회를 약속한 바 있다. 2차 간담회는 본교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에 따른 컨설팅 이행결과에 대한 이상한 총장의 공식발표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 회장은 “2차 간담회 날짜는 현재 주무부서와 협의 중이며, 다음 주중으로 정확한 날짜를 밝힐 예정”이라며 “2차 간담회는 최대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간이 되기 전인 9월 첫째 둘째 주 중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방식은 1차 간담회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학본부 대표가 사전에 질문을 접수 받아 공통질문에 먼저



대답한 후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지난 1차 간담회 때 충분한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공통질문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은강 기자 ddbmskd73@hansung.ac.kr

지면안내

보도
상선제5구역 재개발,
'아파트촌' 들어설까 02

보도기획
상상관 26일 완공,
"머물고 싶은 대학 만들 것" 03



사회
결국엔 빛?
학자금 대출의 결과 속 04

사람사
SF판타지도서관
전홍식 관장을 만나다 05



학술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증강현실 06

문화
따릉이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08



동정란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학부)교수
공 교수는 7월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16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심사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령

임
부국장 김민식(무역 4)

정기자 박혜미(경제 2)
유은강(영어영문 1)
이유정(영어영문 2)

퇴
부장기자 강정윤(한국어문 4)

삼선제5구역 재개발, '아파트촌' 들어설까

우리대학의 우촌관 앞이 사업대상지로 포함되어있는 삼선제5구역 주택 재개발이 지난 7월 14일 서울시 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삼선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후 조합)이 출범한지 6년만의 일이다. 삼선5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1200여 세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이번 사업 시행인가로 인해 삼선제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은 실제 시행까지 '관리처분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부터 60일 내에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만약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한성대 앞은 전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삼선제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조감도

관련단체들의 실질적인 이권에 관련된 매우 예민한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번 재개발로 들어서는 1200여 세대 중에서 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조합원 분양분과 시공사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분양분, 그리고 의무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해야하는 임대주택의 세대가 결정된다. 결국 이 단계는 조합원과 시공사, 시청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내집지킴이'라는 재개발 반대 단체가 조합과 시공사는 유착관계에 있고, 조합원을 속여 착취한다고 주장하는 선전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의 조성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진통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현재, 삼선제5구역

의 유일한 대학교인 우리학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난항 속의 '진입로 재정비'

이번 재개발 계획에는 우리학교 정문 진입로의 폭을 15m까지 넓히는 대규모 진입로 개선공사가 포함되어있다. 한성대학교는 이미 2005년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계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법인 조합원으로서 사업대상에 27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 내의 가장 큰 조합원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학교와 조합 간의 마찰로 재개발 계획 내의 우리학교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길 조합장은 우리학교의 담당자가 최근 거듭된 요구에도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조합원의 책임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은 "재개발 계획 내의 한성대학교 관련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학본부의 협조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에 우리학교 재개발 담당자인 정순선 과장은 "지금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는 때에 준공공기관인 대학교가 누구의 편을 들 수는 없다"고 우리학교의 입장을 밝혔다. 또 정 과장은 "여러번 입장을 설명했으나, 납득하지 못한 듯하다"며 조합의 적대시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찬성과 반대라는 양분할 수 없는 입장 사이에서 진입로 재정비 사업은 자칫 난항 속에 봉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우리학교 #타임라인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8월 29일부터 전자출결시스템(이하 전자출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출결은 '스마트출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출석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출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수강시간표에서 출석하려는 강의를 선택하고, 해당 수업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NFC기에 스마트폰을 태그 하면 하면 출석체크가 완료된다. 스마트출결에서는 그 외에도 출석기록 점검과, 수업 휴·보강 조회, 교수 상담 등이 가능하다.

교강사 또한 '스마트출결'을 다운받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출결을 관리해야 한다. 교강사는 '스마트출결'에서 이의신청 관리, 출석 조회, 휴·보강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출결은 출석을 확실하게 하고 수업의 결손을 최소화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학사지원팀은 "세종대, 가천대, 한동대 등에서 전자출결은 이미 도입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 여름학기에 전자출결을 시범운영 해본 결과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마트출결'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와 자세한 전자출결 매뉴얼은 학사공지 게시판 '전자출결시스템에 대한 안내' 글을 공지 되어 있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하반기 공채 대비, 8월 취업특강 열려

8월 25일, 26일, 29일 3일에 걸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8월 취업특강이 진로상담부 주최로 상상관 SK청년비상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특강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별로 비교과포인트 10포인트가 지급된다.

강연은 진로상담부 이지은(취업상담), 이규란(진로상담) 상담사가 진행했다. 이지은 상담사는 "2016년 하반기 공채에 앞서, 학생들이 개인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취업특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취업특강의 주제는 '자기이해/나의 강점 발견', '자기분석/직무분석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법', '초보자를 위한 면접 첫 걸음', '면접장의 현장감을 살린 모의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25일 실시된 '초보자를 위한 면접 첫 걸음'에 참여한 이보라(무역 4) 학생은 "면접 준비가 막막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고, 강의가 실무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처음 시행된 장바구니 제도, 그 결과는?

지난 7월 13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장바구니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다. 장바구니 제도는 실제 수강신청 기간보다 약 한달 정도 앞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한 후, 수강신청 때 전공 탭에서 수강신청 장바구니를 선택하여 담아둔 강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강의코드와 분반을 입력하는 기존의 방식보다 편리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학사공지를 통해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의 강의 수요를 미리 조사하여 강의실 조정 자료를 효율하고, 학생위주의 서비스 제

공 및 학업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라고 장바구니 제도 시행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학사지원팀 김지호 차장은 "장바구니 제도는 단순히 수강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시행된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트랙 제도에서 사전수요 예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장바구니 제도는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바구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1학년 학생들의 장바구니에 담긴 필수교양 과

정 중 디자인 강의를 처음 약 20분 정도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1학년에게 인원배정을 해야 하는 것을 본교 학생 전원으로 배정하여 인원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인문대 토대 교양이 장바구니 수강신청 기간을 지나 수강신청처지에 올라온 것이다. 이에 대해 역사문화학부 행정사무실에서 "장바구니 수강신청 기간 전부터 실제 신청기간 전까지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버 안정화에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학생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수강신청 과정에서 서버 오류를 겪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장바구니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문의가 없어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17학년도 수강신청에 대해 기획된 바는 없다. 그러나 다음 수강신청은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의 신청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hansung.ac.kr

한성웹메일 '구글 메일'로 변경돼

8월 17일부터 한성웹메일이 기존 캐비 메일에서 구글 메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캐비 메일은 새 메일을 받을 수 없으며, 구글 메일을 통해 새메일 확인이 가능하다. 단, 메일주소는 @hansungackr로 이전과 동일하다. 한성웹메일의 구글 계정 전환은 한성대웹메일 홈페이지 접속 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매뉴얼을 따라 진행하면 된다.

본교 정보화팀은 "캐비 메일은 학생들 사이에서 조작법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구글 메일로 변경하면 모바일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웹메일 전환에 따라 유지비가 연 2천만 원 상당 경감되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구글 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메일의 송·수신 측면에서도 "기존 웹메일에서는 정상적인 메일 일부가 스팸메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구글 메일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개선된다"고 전했다. 구글 계정 전환의 자세한 사항은 학교 학사공지 'Google Mail Open 안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에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종훈 이사장과 이상한 총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귀빈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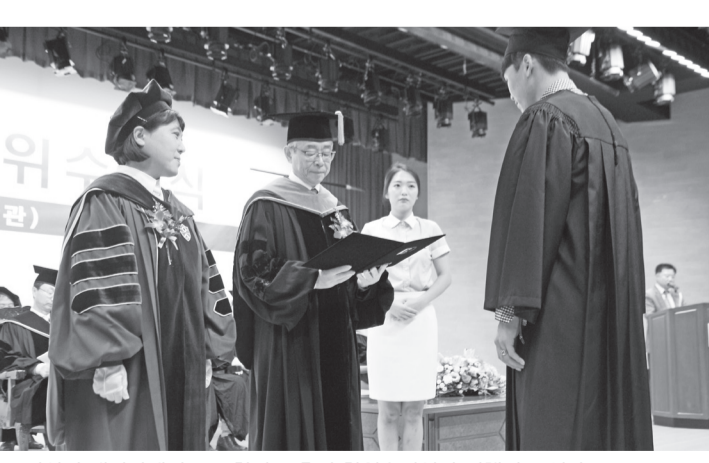
낙산관 대강당은 지난 4년간의 결실을 맺는 졸업생과,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식순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이사장 축사, 총장 격려사, 총동문회장 축사, 고가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한 인원은 박사 7명, 석사 95명, 학부 440명,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68명으로, 총 61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성적우수자, 공로자 등에게

상을 수여하는 수여식이 있었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8명 ▲성적우수상 12명 ▲공로상 18명 ▲특별공로상 1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 등 총 33명이 수상했다. 학부에서는 ▲성적우수상 5명 ▲학과추천 공로대상자 34명 등 총 39명이 수상했다.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사학위과정 성적우수자 1명이 상을 받았다.

총장 격려사에서 이상한 총장은 "졸업생 모두 재학 중에 성실한 자세로 학위과정을 마치고 영광스런 학위를 수여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 4년간 수고를 인정받아 수상 받은 수상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



▲ 낙산관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성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학과추천 공로자상을 수상한 나광엽(컴공 4) 졸업생은 "미래가 걱정되지만, 4년간의 노력이 오늘 수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쁘다. 한성대 후배들에게 모든 길은 열려 있으니 시야를 넓게 가지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이유정 기자 snrm1003@hansung.ac.kr

SK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지난 7월 26일, 미래관 DLC에서 창업지원팀 주최로 열린 SK청년비상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이 수상했다.

김환중(IT응용시스템공학 4)학생의 4명으로 구성된 '위니팀'이 대상을 받았다. 김환중 학생은 고시원 토탈 관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했다. 이 어플은 빈 고시원 검색, 유지보수, 인터리어, 매매, 홍보를 도와준다. 수상자는 "오피스텔, 원룸을 찾을 수 있는 어플은 있는데 고시원을 찾아주는 것은 없어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어 그는 "타 동아리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상을 받아 감사하며,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용훈(취업 창단 RND센터)SK사업단 전담멘토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창업지원팀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학생참여를 독려했다.

이유정 기자 snrm1003@hansung.ac.kr

“이제 학교에서 STAY 하세요”



한성인을 위한 품격있는 교육공간

3층에서 7층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90여명의 인원을 수용가능한 계단형 강의실, 컴퓨터 실습실과 같은 강의실 외에도, 북측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강의실과 3면에 화이트보드가 설치된 강의실도 있다. 이러한 강의실들은 수강인원에 따라 대·중·소규모로 나누어서 운영된다. 7층에는 ‘교강사휴게실’과 ‘학생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가벼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3F 컴퓨터실습실, 중형강의실, 계단식컴퓨터실습실
- 4F IPP사업단장실, IPP행정사무실, 세미나실, 컴퓨터실습실, 강의실
- 5F 강의실
- 6F 강의실
- 7F 교강사휴게실, 강의실, 학생휴게실



대학생활의 오메가와 알파

상상관 지하에는 취업·창업관련 행정부서와 학생 편의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지하 1층에는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사용되는 공간이다. 비교과 포인트 때문에 한번쯤은 둘러봤을 경력개발지원팀과 진로상담부, 관련 세미나실과 같은 다양한 행정부서가 있다. 이외에도 잉글리쉬라운지와 우촌관으로 연결된 주차장이 있어 다른 건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지하 2층 ‘체육공간’은 기존 체육관(낙산관)과 비슷한 크기로, 지하 1층 관람석에서 체육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체육공간은 샤워와 탈의를 해결가능한 남녀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에어로빅 등에 활용가능한 G.X.룸과, 스테디에 활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역시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다.

- B1F 취업창업지원팀, 진로상담실, 경력개발실, 취업전용세미나실, 언어교육원
- B2F 세미나실, G.X.룸, 체육공간



이 위로는 ‘천상계’입니다

8층과 9층에는 총장실을 비롯해 법인사무국 및 각 처장실, 행정부서들이 위치한다. 10층과 11층에는 대학원 행정부서와 대학원 전용 강의실이 있다. 12층에는 행사에 사용될 컨퍼런스홀과 식당이 있다. 식당은 외부업체가 입점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옥상휴게공간은 공원처럼 꾸며진 외부휴게공간이다. 이 옥상휴게공간은 낙산의 탁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상상관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8F 교무처장실, 기획협력처장실, 학생처장실, 총무처장실, 입학홍보처장실, 기획전략팀, 평가감사팀, 총무인사팀
- 9F 이사장실, 법인사무국, 총장실, 비서실, 회의실, 미팅룸
- 10F 대학원 행정중
- 11F 대학원 강의중
- 12F 컨퍼런스홀, 식당, 옥상휴게공간



계단 위에 매점 있어요!

유리로 되어있는 벽을 넘어 상상관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계단 스탠드가 학생들을 반겨준다. 흡사 거대 도서관의 계단처럼 드넓은 계단 중간중간에는 고급 원목으로 만든 스탠드가 놓여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층에는 ‘매점’과 여학생들을 위한 ‘여학생휴게실’이 있다. 여학생휴게실에는 의자와 테이블, 펄상, 온돌, 거울 등이 있어 여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학생 휴게실 옆에는 바로 매점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좋다. 매점은 상황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유리벽에 따라 연구관을 빙 두른 테라스와 연결되며, 상상관과 운동장에 곧장 연결되는 이동 허브로 이용할 수도 있다.

- 1F 한성아키비움, 사회봉사&장애학생지원센터
- 2F 매점, 계단식강의실, 여학생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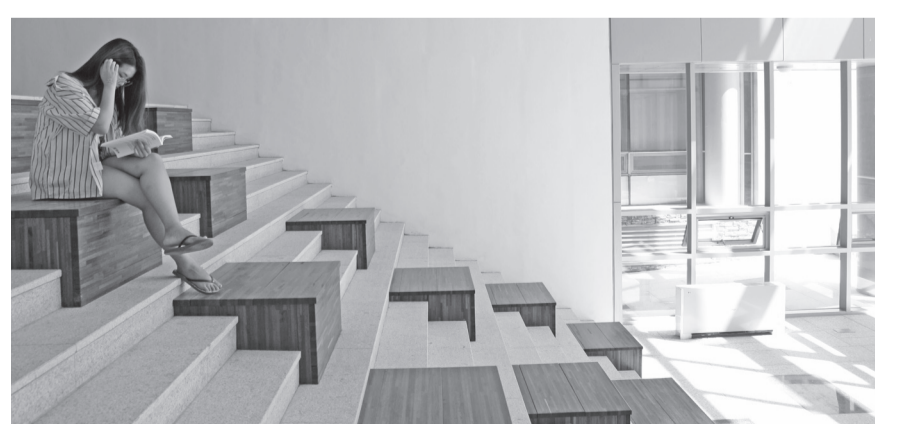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상상관 지난 26일 완공, “머물고 싶은 대학 만들 것”

상상관이 8월 26일에 완공되었다. 따라서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상상관에서 강의실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지원팀 박종석 담당자는 상상관의 컨셉을 “스태이(Stay)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히며, 상상관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담당자는 상상관의 건립 취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며, “같은 등록금 내고 대학교 다니는데 타대학 대비 최소한의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대학의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상관이 완공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운동장이 ‘휴식공간’으로 돌아온다. 운동장에는 배드민턴이나 풋살

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스탠드, 자유로운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버스킹 무대를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표방하는 상상관도 현재와는 다르게 당초 설립계획에는 교직원들의 편의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7층은 대학원 사무실로, 10층과 11층은 모두 교수연구실로 예비되어 있었으나, 이상한 총장이 취임 직후 ‘상상관’은 학생들의 건물이니 교수연구실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여 7층과 10층, 11층 모두 강의실과 세미나실로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연구실은 11층 일부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나마도 초빙 연구원이나 외부 프로젝트

를 위한 연구실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강의실의 수는 대폭 증가했고, 컴퓨터 실습실과 세미나실도 소폭 증가하여 학생들의 교육공간이 확장되었다. 이번 상상관의 건립으로 우리학교의 1인당 교육면적은 기존 교육부 권장량의 91%에서 118%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담당자는 상상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 ‘머무는 대학’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우리학교 학생들은 공간시간에 딱히 머물 곳이 없어 과실에 머물거나, 대학로 등으로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나 상상관과 운동장의 완공으로 다양한 휴식공간들이 개방된 새 학기에는 이러한 학교생활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상상관은 우촌관·미래관·연구관·운동



▲ 상상관 1층계단

장으로 연결되는 이동허브이며, 이 때문에 상상관의 다양한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는 학교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자는 아름답게 조성된 휴식공간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학생들에게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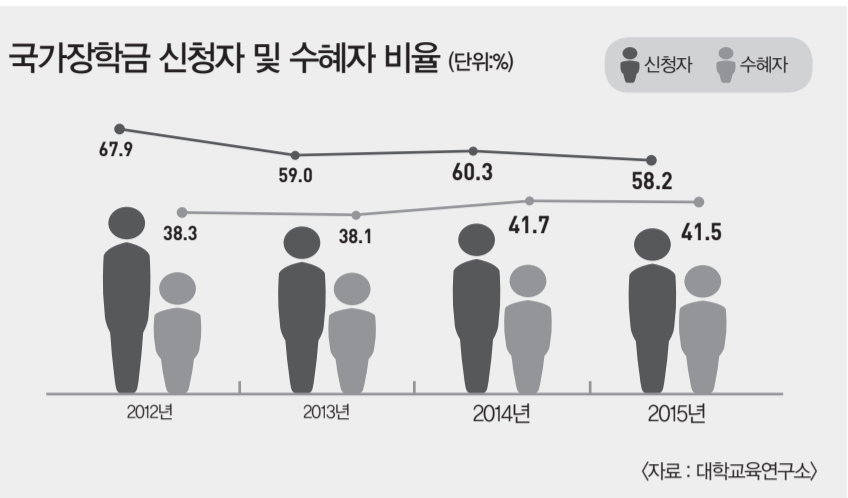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결국엔 빛? 학자금 대출의 겉과 속

이자율, 생활비 대출 등 제도 개선이 시급, 근본적으로는 등록금부터 낮춰야

본교 재학생 김모양(21)은 방학이 끝나갈 무렵, 학교로부터 어김없이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2학기 등록금 고지서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일부 받았지만 고지서에 명시되는 등록금의 액수는 김양에게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번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부터 나온다. 이자율이 이전에 비해 낮아졌어도 학자금 대출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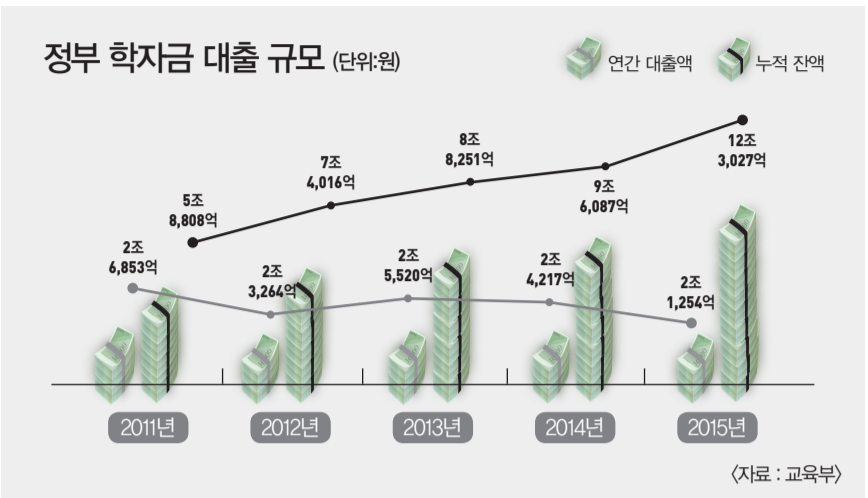
여전히 부담스러운 학자금 대출 이자율
 학자금 대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7%였던 2010년도부터 2.5%인 현재까지, 이자율이 학업을 위해 받는 대출이라기에는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올해 2학기를 기준으로 2.7%에서 2.5%로 이자율을 0.2%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거나 보여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인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난달 27일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시행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 임희성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받는 금융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상은 무용지물인 생활비 대출 제도
 생활비 대출 역시 대학생을 위한 제도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생활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2015년 10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는 366,022원(약 36만 원),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는 경우 488,934원(약 49만 원)이다. 하지만 소득 분위 1분위가 연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다. 생활비 대출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25만 원이다. 이는 대학생 평균 생활비에 최소 11만 원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도록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높은 등록금
 학자금 대출의 근본적인 문제는 등록금이 높고, 대출액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현재 국가장학금은 성적과 소득 분위의 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한정되어 있다. 대교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는 전체 학생의 41%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2학기 기준 15만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성적 조항에서 탈락했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59%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규모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대변한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될 뿐만 아니라, 현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임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고지서 상의 등

록금을 낮추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나 필요하다. 이에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장 이상적인 학자금 대출의 모습은 '학자금 대출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되어야 한다. 김모양(21)은 2년 후에 졸업을 한다. 수년 동안 공공연히 제기되었던 학자금 대출의 문제가 과연 김양이 졸업하기 전에 개선될지 김양은 우려스럽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도 근심이 없는 날은 김양에게 언제쯤 올 수 있을까.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학내 민주주의는 어디로? 성신여대 총학생회 사태

작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게 됐다.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회비라는 단어가 사라지더니, 곧이어 총학생회마저도 없어져버린 것이다. 성신여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성신여대 대학본부는 총학생회비의 납부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기존의 등록금 고지서에 선택적 납부항목으로 포함되었던 총학생회비가 이에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학생회비 강제 납부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과 학생회의 마찰은 그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5년 12월 성신여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의해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됐다. 그런데 투표가 시작된 후, 학교 측이 "총학생회장 후보가 '학생단체의 장 및 임원은 전체 학기 총 평점평균이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성신여대 학칙 제 12장 59조의 2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 회의에서 18분 만에 해당 학칙 적용에 동의했고, 학교 측은 선거를 폐쇄조치 했다. 총학생회는 이에 반발하여 해당 학칙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헌적이므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이다"라며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권자의 50%가 넘는 5720명의 학우가 선거를 재개하라고 서명했지만, 결과는 반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3월 성신여대 총학생회 재선거 열렸다. 대학본부와 중선관위는 여기서도 마찰을 빚었다. 학교 측이 "새롭게 뽑힌 중선관위원장이 학칙 위반 사항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지금의 중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중선관위는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재학생의 명부를 만들어 선거를 진행시키려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학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것을 공고하고 나서 선거를 재개하라"고 못박았고, 결국 중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선거는 또다시 4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중선관위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학교 측은 선거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중

선관위는 타 대학의 기표소와 투표함을 빌려와 손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선거를 통해 투표율 약 65%, 득표율 약 97%로 현재 총학생회가 건설됐다. 당선 후, 학교 측은 "중선관위 위원 중 몇 명이 학칙 위반 사안으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 기구를 학교에서 불인정 하는 것은 엄연한 탄압"이라고 맞섰다. 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학교 측은 여전히 새로운 총학생회를 무기한 불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간담회와 같은 자리에선 총학생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성신여대는 프라이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학생들과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표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다. 학생들의 관심과 대학본부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hansung.ac.kr



이 기자의 정치사건

'자율이 안 되면 규제', 논란 속의 김영란법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사립교원·언론인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본인과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는 1회 3만원, 선물은 1회 5만원을 넘어서는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영란법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한 법안으로 그 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사학재단 이사진들까지 모두 포함한다. 입법초기에는 실행될 시 적용대상이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잉침해라는 논란이 있어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법안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지난 7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9월 28일 시행이 확정되었다. 공무원을 넘어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부패가 법으로 완전히 규제되는 '부패척결'의 효과를 현재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의 부정 부패를 일소할 목적으로 입법된 법안인 만큼 실행될 때의 파급력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 일대의 고급 한정식집은 물론, 고급 선물세트로 이름을 날리던 영광굴비, 황성 한우, 인삼, 산삼, 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

치 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김영란법이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칠 피해액이 최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선물 상한액을 5만원이라 가정할 시, 선물 시장 규모가 최대 7373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8월 8일에 국회 앞에서 이홍길 한국농수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음식물 매출이 최대 4조 2천억원에 이르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일각에서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무시하고 무작정 시행부터 하고 본다는 '강행'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에서도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은 예외로 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그러나 당장 국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농축산물이나 원예를 예외 물품으로 규정하면 직무관련자가 고급 한우 세트나 수십만원의 호가하는 난을 보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정부지원을 통한 '연착륙'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여당은 '김영란법 피해 산입대책위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각계를 조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담배를 끊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 법이 정착하기까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혼란을 지나 우리 사회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취미생활의 끝판왕, SF·판타지도서관 전홍식 관장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순수한 즐거움”

자신의 취미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사비를 들여 도서관까지 설립한 마니아가 있다. 바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SF·판타지도서관을 운영 중인 SF 마니아 전홍식 관장이다. 2009년 3월 정식 개관을 한 SF·판타지도서관은 현재 8년째 운영되고 있다. 여력이 계속되는 한 도서관을 운영할 생각이라는 전홍식 관장을 만났다.

왜 SF였을까? 거부할 수 없었던 SF만의 매력

전홍식 관장은 SF(공상과학소설 Science Fiction의 약어)에 언제부터 빠지게 된 것일까? 그가 느낀 SF 장르만의 매력이 궁금했다. 그는 1997년부터 <스타워즈>를 통해 본격적으로 SF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광활한 우주에서 별을 넘나드는 모험의 세계에 흠뻑 빠지게 된 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4편에서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우주선 외에도, 쓰레기 장이나 낡고 허름한 등장인물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주 어딘가에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꿈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경계심을 심어주는 SF만의 힘

전홍식 관장은 SF의 매력이자 가장 큰 힘으로 ‘상상력’과 ‘가능성’을 꼽는다. 어린 시절 과학상상화를 그리며 꿈꾸던 미래 모습들이 오늘날 증강현실·가상현실·인공지능·최첨단IT기술 등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말한다. “SF 장르는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그럴싸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SF를 보다 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조지 오웰의 <1984> 등과 같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디스토피아(dystopia)적인 세계관도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홍식 관장은 이미 우리가 조지 오웰의 상상 일부가 실현된 ‘빅브라더’의 감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그는 <1984>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빅브라더’를 경계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알고’를 보면서 영화 <터미네이터>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도, 영화 <투모로우>를 보면서 지구의 방하기 도래와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게 된 것도 모두 SF의 힘이라는 것이다. “저는 SF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SF는



사람들이 상상하고, 사유하고, 또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SF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

SF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안타까워하며 입을 열었다. “SF가 유치하다거나 혹은 어렵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편견입니다. 이야기를 이야기 자체로 즐기려는 것이 소설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SF에 나오는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려 하거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근거를 분석하기 시작할 때, 감상이 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는 영화 <스타트렉>의 일화를 소개했다. 스타트렉 제작진에게 누군가가 “스타트렉에 나오는 워프 장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라고 묻자, “아주 잘 작동합니다!”라고 답했다는 것. 즉, 이야기 구조상 워프 장치가 잘 작동하면 그만 된다는 것이다. “SF, 사이언스 픽션의 방점은 사이언스가 아닌 픽션에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SF는 가상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픽션, 하나의 창작예술물인 것이죠.”

취미야말로 인생을 즐겁게 하는 요소

도서관 운영이 전홍식 관장의 본업은 아

니다. 도서관은 취미의 연장선이다. 사재를 털어 도서관을 운영해 온 그에게 취미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행복하려면 삶에서 즐거운 일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일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취미지요.”

그는 먼저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며,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많은 청년에게 굳이 직업으로 꿈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좋아하는 것과 직업 간에 괴리가 발생할 때, 필요한 해결책이 바로 취미라는 것이다. 그는 대다수 사람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좋아하는 걸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찾게 되면, 그 하나만 있어도 삶이 행복한 것이죠.”

전홍식 관장은 도서관이 SF·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것에 애김없이 애정을 쏟는 전홍식 관장을 통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하나에 몰입하는 인간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저는 SF·판타지도서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한성人SIDE

“힙합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500여 팀이 참가하는 언더그라운드 판 쇼미더머니, ‘슈퍼루키챌린지’에서 당당히 상위 14팀 안에 든 뮤지션이 있다. 짧게 밀은 머리와 범상치 않은 패션. 강의실 복도에서 마주했다면 그의 특별함을 더욱 체감했을지도. 평범한 컴퓨터 공학과 학생에서 트라이엑스 회장, 뮤지션 ‘셀렉토’까지 다양한 모습의 손민규(컴공 2) 학우를 만났다.

Q. 머리 스타일이 눈길을 끈다. 머리를 민 계기는

A. 2015년 부족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휴학을 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머리를 밀었다. 그 이후로 이 머리 스타일을 고수한다. 매번 머리를 밀 때마다 초심을 되새긴다.

Q. 랩네임이 ‘셀렉토(\$electo)’다. 랩네임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집 앞의 카페 ‘셀렉토’로 갔다. 그래서 ‘셀렉토’라 지었다. 얼핏 단순히 보이지만, 내 모든 음악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름이라 생각한다.

Q. 왜 힙합을 하게 되었나?

A. 고등학교 때 적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때 친구들이 듣는 음악을 듣게 되었다. 다이아믹듀오의 ‘U’였었다. 그 이후 힙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Q. 가사를 직접 쓰는가? 가사에는 어떤 내용을 담나?

A. 직접 쓴다. 내 이야기를 담는다. 단,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쓴다. 허구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힙합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Q. 힙합을 하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

A. 공연 후에 받는 공연비의 격차가 심해 경제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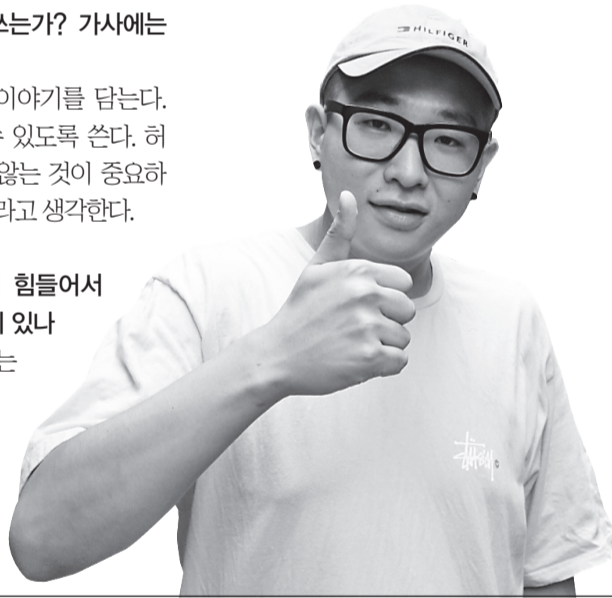
로 힘든 적은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오기가 생긴다.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의지를 다진다.

Q. 목표가 있나?

A. 2018년까지 세워 둔 목표가 있었다. 올해에는 슈퍼루키챌린지에 나가 상위 14팀 안에 드는 것, 2017년에는 믹스테이프를 만들고, 2018년에는 흥대를 주름잡는 인물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올해의 목표를 빨리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수정했다. 지금은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중이다. 내년의 목표는 흥대를 주름잡는 인물이 되는 것으로 당겨졌다. 최종 목표는 힙합을 누구보다 잘 하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손민규 학우는 힙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가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공연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일까. 그는 누구보다 확신에 가득 찼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목표한 일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의 생각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어쩌면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성공을 자신하는 그가 학우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힙합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문지수 기자 answn15@hansung.ac.kr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에서는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생
2. 상담 기간 : 2016년 08월 29일(월)~2016년 12월 9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서평, 칼럼, 프레젠테이션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글
4. 상담 내용 :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목차 구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글쓰기 전반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상담 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신청(신청확인 MY PAGE)
6. 비교과 포인트 : 지금 포인트 10점 (최대 포인트 30점)
7.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진리관 104호, ☎ 02-760-4354)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어디에도 실재하지 않지만(No Where), 지금 여기 존재하는(Now Here) 세계

최근 '포켓몬Go'가 인기를 얻으면서 증강 현실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사물이나 배경에 가상의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가상현실이 가상의 공간과 사물의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 위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여준다.

증강현실을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 요구된다. 현실의 지리·위치 정보를 인식하여 가상의 객체를 모바일 기기 화면에 위치시키는 마커 인식기술, 위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GPS나 중력 장치 및 카메라·센서 기술, 그리고 실제와 가상을 이질감 없이 합치는 영상합성기술, 3차원 영상이나 음향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LCD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증강현실 기술은 최근에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에 최초로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모델이 HMD(Head Mounted Display) 형태로 고안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보잉사가 항공기 조립과정에 증강현실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여러 기술적 난제에 부딪혀 개발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이동성이 뛰어난 IT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증강현실 기술이 다시 부각되었다.

증강현실 기술이 부각되는 한편, 증강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실과 가상의 혼재되어 그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강현실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이라는 주체가 현실이라는 객체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존재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나 장자의 '호접지몽'도 진실에 대한 인식론을 다루고 있다. 근대철학의 시발점도 '나라는 사유의 주체와 인식하는 대상이라는 이분



▲ 최근 잡지에 나온 가구를 집에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는 어플이 등장했다. (사진출처 : Wikipedia)

법적 세계관이다. 그러나 현실과 가상을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보고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등교하는 것'과 같은 매우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 외의 모든 현실 정보는 모사된 이미지를 통해서 접한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실들, 합성된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태양계의 질서와 지구의 운행... 현실의 모든 정보는 시뮬레이션되고, 프로그램된 비현실적인 것이다. 즉,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재구성된 가상현실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대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허구적 현실을 즐기는 이유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인간이 인식한 현실에는 맹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현실 자체를 신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생각했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인식된 현실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적 현실에 가상

을 덧붙여서 부족한 정보를 메우고, 나아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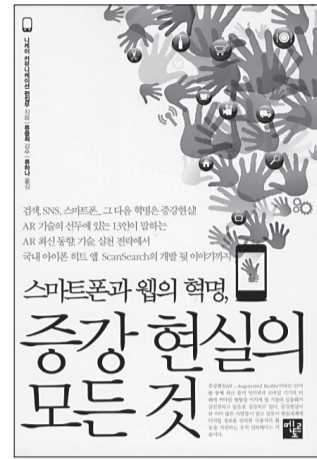
그러한 인간의 욕구는 점차 현실과 가상간의 거리를 좁히고, 가상세계를 진짜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들을 만들었다. 예컨대, 비행 시뮬레이션은 가상이지만, 훈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상의 세계에서 진짜 현실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처럼 증강현실은 우리의 삶에서 가상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혹자는 이제 현실 인식능력보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인간의 상상력이 그만큼 빛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이미 존재하던 현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지금이 증강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자, 이제는 답해야 할 차례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구현할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뒤엎고 지배하는 강력한 가상세계로의 초대장이 될 것인가?

김민식 기자 meanchic@naver.com



증강현실, 어디까지 왔을까?



증강현실의 모든 것 : 스마트폰과 웹의 혁명

저자 : 니케이 커뮤니케이션(류하나 역)

출판사 : 멘토르

출판일 : 2010. 9. 15

책소개 : 『증강현실의 모든 것』은 일본의 증강현실 기술 전문가 13인의 강연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각각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증강현실 기술의 변천을 짚고, 분석과 예측을 통해 미래에 새롭게 다가올 증강현실의 모습을 그려나간다.

배지타가 쓰는 '스카우터',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자비스'처럼 증강현실은 다양한 만화 및 영화작품에서 소재로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항상 미지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증강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차례차례 실현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대중들의 이와 같은 물음표에 답했던 일본의 여러 전문가들의 강연과 의견을 혼합해서 엮은 것이다. 강연 형식을 가져온 데다, 단어에 대한 주석이나 사진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중의 다른 책들에 비해 읽기 편하다. 증강현실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물론, '상황인식' 같은 주요 개념들도 잘 다루고 있다.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증강현실이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가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기술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독자들에게 이정표가 된다. 특히 이 책 전반부는 산업 중에서도 증강현실과 맞닿은 곳에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주는 정보가 많다. 이런 분야들은 그 분야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들이 더욱 와 닿을 수 있다.

또한 책 후반부에서는 증강현실을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유적을 복원하거나, 재난대비 훈련을 하는 등,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없었던 사례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예들은 증강현실이 단순히 개인의 생활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행정 같은 사회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책은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증강현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책을 읽어낸 니케이 커뮤니케이션 역시 머리말에서 'AR의 무한한 가능성이 널리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미지수, 불안요소를 역시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등장하는 증강현실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증강현실이 우리 실생활에 깊게 들어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박종민 기자 toad1013@naver.com

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신의 선물, 코카인

3대 마약 중 하나로 알려진 코카인은 그 역사가 깊다. 과거 자연신의 제물로 바쳐진 코카인의 주원료, 코카 잎은 당시 안데스 지방 사람들에게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6세기경의 남아메리카 지역의 모체 문명, 잉카 문명 등에 코카 잎을 씹고 있는 조각상을 찾아냈다. 하지만 현재, 코카 잎과 코카인은 온갖 마약 범죄를 일으키는 '악'으로 존재한다. 신의 선물이 어떻게 '악'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고대 안데스 지방 사람들은 코카 잎을 일상적으로 씹었다. 코카인의 주요 성분인 코카인 알칼로이드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하지만 이것은 코카 잎에는 소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코카 잎을 씹는 행위는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고산지대에서 활동하는 안데스인들의 허기, 갈증, 피로 등을 해소하는 자양강장제였다. 이에 대해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박사 레스터 그린스푼 교수는 '현대 우리가 커피를 마시듯 그들은 코카 잎을 씹었다고 말한다.'

이후 1859년 앨버트 니에만이 코카 잎에서 코카인 알칼로이드를 추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카인의 역사가 시작된다. 코카인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물질이다. 이는 체내의 세라토닌과 도파민을 더욱 많이 분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흡인 시 우울증을 없애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니에만은 이것을 약물로 쓰려고 했지만, 코카인이 인체 미치는 효과는 결국 중독문제를 야기 시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카인뿐만 아니라

아편, 헤로인 등 마약에 대한 중독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가 간 마약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약의 중독성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요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투자 대비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는 마약 거래는 불법 마약 조직들의 등장을 유발했다. 남아메리카에는 코카인을 주로 취급하는 '마약 카르텔'이 등장했다. 코카인 최대 생산국이었던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이 남아메리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코카인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당시 미국으로 유통되는 코카인의 80%를 콜롬비아에서 활동하는 '메디진 카르텔'이 담당했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코카인의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활동하

는 '멕시코 카르텔'은 코카인을 미국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코카인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는 현재까지 멕시코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앨버트 니에만이 처음 코카 잎에서 코카인을 정제했을 때, 그는 코카 잎이 가지는 의약적 기능에 주목했다. 하지만 코카인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안 마약 조직들은 이것을 악용했다. 그리고 코카 잎은 결국 '악'으로 규정됐다. 이제 우리는 코카인을 두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물질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제2의 코카인, 제3의 코카인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유동현 기자 ehdkf6392@hansung.ac.kr



▲ 코카인의 원료 '코카 잎'

오늘의 강연 '히스토리 스페셜, 위험한 중독 마약 : 코카인'

역사를 삼킨 코카인



▲ 위 사진은 '히스토리 스페셜 위험한 마약, 코카인' 중 한 장면이다.

이 영상은 '위험한 중독 마약' 시리즈 중 '코카인'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영상에서는 코카인이 어떻게 탄생되고 유럽인들에게 전파된 것인지 시기 순으로 보여준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코카인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9세기에 만들어진 영상과 영화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약으로써의 코카인이 아니라 콜라, 와인, 의약품 등 다양하게 소비되던 코카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헤리슨 법안(Harrison Act)'처럼 생소한 개념들은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설명이 이해를 돕는다. 전문가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마약을 실제로 흡입한 사람들 혹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영상에 사실감을 부여한다.

영상은 단지 코카인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 유행하는 문화 등을 같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코카인의 개념

과 코카인을 사용하게 된 배경 등 코카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코카인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교황 레오 13세(Leo PP. XIII)' 등 관련 유명인들의 비화를 같이 다루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유발 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화려한 영상미는 없지만, 코카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영상은 코카인의 역사를 알고 싶은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할 것이다.

박혜미 기자

hzm1324@naver.com

본 영상은 우측 QR코드 연결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의화정

참! 씹쓸한 대학가 이야기, “강의매매·교환”

2,3년 전부터 대학가 수강신청 기간에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000과목 양도해 주세요 사례합니다.”

“000과목 가지고 있어요. 000과목과 교환 원합니다.”

개강을 앞두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가에는 웃지 못 할 엉뚱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은밀하게 강의가 매매되거나 교환되고 있는 것이다. 매매·교환에 인기 있는 과목대상은 대체로 졸업에 필요한 필수 교양이나 전공과목, 학점 받기 좋은 어렵지 않은 과목들이다. 인기과목에 따라 강의매매 가격은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품귀현상일 때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다. 사례는 돈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휘트니스 회원권까지 00과목에 두 과목을 끼워 교환한다는 끼워 팔기 등 갖가지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우려는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다. 단순 용돈벌이 수단으로 실 수강생이 아니면서 수강신청을 하고 이를 매매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건 강의의 수요·공급이 적절치 않고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강의신청 때문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평가라는 정책에 떠밀린 대부분의 대학들은 평가 주요 지표인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는 항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개설 강좌 축소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기반이 약한 대학들이 이 항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 증원, 강의실 등 제반시설의 확보라는 거대한 짐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강의 매매·교환!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수강신청 경쟁에 실패한 학생들로서는 필수 교양이나 필수 전공과목을 수강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학기 더 등록금을 내는 것보다 강의를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이유는 취업난이다.

학점을 잘 받아놓아야 경쟁적인 취업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는 학생들의 조바심은 쉬운 과목, 과제 없는 수업, 학점 따기 좋은 강좌로 몰리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의 성향과 강의평가, 강의 내용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해 학생들만의 사이트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강의매매·교환을 막기 위해 여러 대학 측은 관련 학칙을 정비하고 적발되면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듯하다. 대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부 대학 수강신청 제도인 입학제를 도입하거나 마일리지, 장바구니제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학생들의 양심! 지성인으로서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 씹쓸하다... 누구의 잘못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 사회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

안현주(매선학부) 교수

· 삼 학 송 ·

힘겹게 막아낸 위기

개학과 동시에 우리학교 컨설팅 결과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우리학교는 재정지원제한에서 온전히 벗어났다. 이제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재학생들의 일반학자금 대출 제한도 없어졌다. 상상관 건립, 학사구조개편 등 그간 있었던 학교의 노력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결과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번 결과는 ‘학교가 발전한 결과가 아니라 학교의 위기를 힘겹게 막아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학교는 매우 많은 것들을 소모했고, 학내 갈등 역시 크게 증폭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평가결과 공개 후에도 우리학교의 평가등급 ‘D+’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학교 내에 발생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과거를 곱씹어보는 것이다.

이번 컨설팅 준비에서 학교는 학내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 대학과의 경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왔다. 지난학기에 있었던, 현대무용전공 폐지문제, 사회과학대의 무기한 시위 그리고 학생 간담회에서 있었던 양측의 공격적인 질의응답은 모두 결과주의적인 학교의 방침에 따라 발생한 갈등상황들이었다.

학교는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타 대학에 우리학교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평가 대상이 된 학교는 66개교나 되었지만,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개교만을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했다. 이중에서도 4년제 대학은 10개교뿐이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학교의 선택은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손짓조차 학생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만약 학교가 학사구조개편과 같은 중대한 사항들을 기획할 때,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줬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어국문전공 학생회 등에서는 학내 중대 사안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증가시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학내에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지만, 학교는 이러한 의견들을 지나가버린 이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학내구성원들이 학내 중대 사안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모두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특히 학내구성원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들은 충분히 이런 고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이번 태풍은 아슬아슬하게 우리학교를 빔나갔다. 하지만,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상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 또 태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학교를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내실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우리 모두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박종민 편집국장

기자수첩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필자는 이번 해 5월 학보사에 입사했다. 학교가 학사구조개편과 현대무용 시위로 인해 떠들썩할 때였다. 학교 내에서 학사구조개편과 관련된 무성함 소문이 떠돌았지만, 필자는 학보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학사구조개편에 별 다른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사구조개편을 조사하고 취재해본 결과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대학평과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학(부)과 정원 조정, 트랙제도 등 학교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문제였다. 장기적으로 부실대학에 속하게 되면, 학교는 존폐

위기를 맞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물론 교육부 컨설팅 결과가 좋게 나와 간신히 고비는 넘겼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2017학년도부터 실행하는 트랙제도의 커리큘럼 확정, 2차 간담회 시기조율 등 학사제도개편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트랙제도를 실행할 시, 발생하는 교강사의 부족도 아직 명확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즉 앞으로의 개편·발전 방향에 따라 D+등급에 머무를 수도, 목표로 하는 A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2주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다.

많은 학우들이 학내 문제에 무관심하다. 개인적으로는 무관심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부정-분노-타협-우울-체념’의 심리적 단계를 밟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필자의 지인들도 학교 문제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귀를 닫고 개인 어학공부나 스포츠 썰기에 열중한다. 이른바 ‘각자도생’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학교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개인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학교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따라 텅 빈 학교가 씹쓸하다.

박혜미 기자

낙산에 올라

시끄러워지는 한국 웹툰계, 드러나는 문제점들

조용하던 한국 웹툰계에 갑자기 핵폭탄이 떨어졌다. 시작된 아이러니하게도 한창 민감한 이성 혐오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성우가 자신의 SNS에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성우와 계약한 게임사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해당 성우를 지지한다며 게임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부 웹툰 작가들도 같은 입장이라는 태도를 드러냈다.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는 메갈리아다’ 등 꽤 직설적인

표현들도 많이 등장했다. 독자들은 입장을 표명한 웹툰 작가들에게 비판을 가했으나, 몇몇 작가들의 발언은 독자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이는 독자들이 웹툰 보이콧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일부 작가들이 독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독자들에게 만화를 제공해주는 작가가 갑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층을 충분히 실망하게 하는 발언이다. 한때 정부에서 만화 산업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한국 만화 산업과 웹툰계를 지키기 위해 ‘NO CUT’ 캠페인을 벌여온 독자들을 우민 취급하는 것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작가 본인들의 고료가 독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작가들은

먹여 살리는 것은 포털 사이트이지 독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만화 안 볼 거야?’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웹툰 보이콧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부 만화가들은 프로 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만화의 완성이 독자가 그 만화를 읽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자들 또한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기 보다는 작가의 ‘사상검증’에 치중했다. 한국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 한사람으로서, 한국 웹툰의 발전을 위해 작가들도, 독자들도 올바른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아린(한국어문 2)

HBS
한성대학교 방송국

수습국원 절찬모집중

vol.37

"한성대학교 16학번 학우분들 중 방송 관련 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모든 학우분들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 모집 기간
한성대학교 학부생
- 모집 대상
한성대학교 소속 16학번 누구나
- 지원 방법
한성대학교 창의관 210호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문의) ☎ 010-8509-2904 ☎ 02-760-4184 카카오톡 친구추가 @hbs

따릉이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따릉이 TIP

먼저 따릉이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서울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이용권 결제를 해야 한다. 따릉이 대여소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권을 미리 구매해야 한다.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어플 '따릉이'를 활용하면 그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대여 요금은 최장 기간 대여하는 경우(365일권)조차 3만원이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일권(하루 이용권)의 경우 '천원'에 불과하다. 일일권의 경우 첫 회 대여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계산된다. 즉 1일권을 13시에 구매하면, 15시에 처음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 가능시간은 다음날 15시까지이다.

1회대여 시간은 60분이며 60분이 지난 경우 추가요금을 물어야한다. 따라서 따릉이 이용자는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1시간마다 반납신청을 해야 한다. 추가요금은 30분마다 1천원이 추가되며 4시간이 지나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난처리로 신고 되니 유의해야한다.

도난 및 분실의 우려로 인해 대여소에서는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는 도심에서 달리고자 할 때, 보호 장비를 챙겨야 한다. 도로법상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이 달리는 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한다.

대여소의 위치가 궁금하다면 서울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현 기자 ehdk6392@hansung.ac.kr

9월, 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의 즐거움은 모두 끝나고, 이제는 우리 모두 학업으로 돌아가야 한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나 학업으로 썩었던 사람들에게 개학은 야속하기만 하다. 학기 중이라도 이 아쉬움을 달랠 수는 없을까?

필자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여행 수단을 찾아보던 중, 자전거 여행을 발견했다. 특히 서울시에는 1000원만 내도 하루 종일 탈 수 있는 따릉이가 있어, 단 하루만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코스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학 때 여행을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고풍스러운 고궁과 돌담길, 종로

자전거를 타고 가볼만한 첫 번째 코스는 종로다. 종로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고, 다니는 차량이 많다. 때문에 자전거 여행을 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여유롭게 주변을 살펴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종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풍스러운 길목들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 마치 과거에 온 느낌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추천할만한 코스는 북촌 한옥 마을에서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돌담길이다. 이 코스에는 도로 옆에 궁궐을 감싸는 돌담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강조한 카페나, 명소들이 많다. 한복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나, 한국어로 적힌 카페 간판들도 한국적인 느낌을 잘 전해준다. 중간 중간에 들러볼 수 있는 고궁들 역시 좋은 관광 명소다.

처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종로를 출발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는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가 다른 곳보다 많기 때문에, 따릉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궁 앞에는 자전거를 거처해 둘 수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고궁을 관람할 생각이라면 이 거처대들도 이용해보자.

시원한 바닷길과 속도감, 강변북로

자전거가 주는 속도감을 원한다면 강변북로가 있다. 제방 위로 쪽 뻗은 길을 따라 달리면, 시원한 바닷길과 한강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계속 강만 이어진 지루한 경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변북로에는 볼거리가 다양하다. 일단 반포대교에 도착하면 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지개 분수를 볼 수 있다. 무지개 분수를 더 멋지게 보고 싶다면 다리 밑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물줄기가 곡선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저녁에는 분수와 더불어 새빛섬에서 펼쳐지는 레이저쇼도 감상할 수 있다.



강변북로의 또 다른 장점은 사이클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코스가 매우 길어서

이용자가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다. 가장 긴 구간은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부터 강매역까지 연결되어 있다. 초보자라면 한남역에서 반포대교까지 코스를 추천한다. 이 코스는 일직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코스이다.

강변북로 코스에는 편의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은 미리 챙겨가는 것이 좋다. 만약 챙겨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산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전거들의 쉼터, 제1보급소

강변북로 자전거 도로 구간에는 휴대 음식점을 찾기 힘들다. 마땅히 쉼만한 공간도 없다. 이런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서울 중심에 있는 서빙고역 근처 '제1보급소'는 사막 속에 숨어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쉼터를 만들고 싶었다는 사장님의 말처럼, '제1보급소'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일단 카페 내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인테리어 또한 많은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간소하게 되어있다.

1층에 있는 카페에서는 커피와 음료 등을 사먹을 수 있는데, 가장 요긴한 제품은 썩양갱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당분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 거리를 가야



이유정기자 snm1003@hansung.ac.kr



외모지상주의 속 '외모지상주의'

우리는 종종 잘생겨졌으면 한다. '외모가 개인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는 루키즘이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의 이러한 소망은 당연한 듯 보인다. 박태준 작가의 「외모지상주의」에서, 못생기고 뚱뚱한 주인공 형식은 잠이 들 때마다 강한 몸과 잘생긴 얼굴을 가진 새로운 몸으로 깨어난다. 이러한 판타지적 요소는 독자들의 환



▲ 웹툰 '외모지상주의'

상을 충족시킨다. 밤에는 못생긴 기존의 몸으로, 낮에는 잘생긴 새로운 몸으로 활동하는 형식은 몸이 바뀔 때마다 다른 대우를 받는다. 원래의 몸으로 활동할 때는, 단지 못생겨서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 폭언을 경험한다. 아무리 심한 말을 들어도 형식은 항상 그랬듯이 참는다. 한 예로, 형식의 반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형식이 술을 안 팔았다는 이유로 그의 웃을 벗겨 사진을 찍고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수치를 당한다. 하지만 새로운 몸은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다. 새로운 몸으로 바뀐 형식은 자신의 사진을 보며 웃는 사람들 중 한명인 중학교 권투 유망주였던 이



▲ 형식이 진성을 단숨에 때려 눕히는 장면
진성을 단숨에 때려눕힌다. 뿐만 아니라 형식은 나중에 그들을 보여 훈계까지 한다. 이처럼 못생긴 형식은 언제나 부조리를 당하고 잘생긴 형식은 항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정은 아이러니를 자아낸다. 인물은 의도적으로 콧물, 주근깨, 비정상적인 얼굴 크기 등의 작화를 활용하여 두드러지게 한다. 게다가 진호빈이란 캐



▲ 못생긴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 작화
릭터는 같은 학교 친구를 보며 '더럽다, 냄새 난다, 너만 보면 토할 것 같아'와 같은 말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못생긴 캐릭터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작화는 이 폭력적인 언어조차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로 만든다. 이 웹툰에서는 '잘생김은 싸움을 잘한다'는 공식이 존재한다. 잘생긴 캐릭터로

나오는 이은태, 이진성, 홍재열 등의 인물은 열의 없이 싸움을 잘한다. 현실세계에서 잘생긴 것과 싸움을 잘하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맞춰놓은 유치한 설정은 현실의 세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잡지 '빅이슈'는 「외모지상주의」를 사회비판적인 웹툰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 웹툰 속에 숨겨진 '외모 = 능력', '비정상적 작화', '유치한 설정'은 사회 비판의 요소들을 모순으로 만들고, 오히려 루키즘을 조장한다. 「외모지상주의」의 아이러니처럼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를 증오했고 동시에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유동현 기자 ehdk6392@hansung.ac.kr